

목사님! 상담해 주세요

기쁨이 없을 때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까?

Q) 성경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때는 교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즐거움도 기쁨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도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시는 겁니까?
또 얼마전 신뢰하는 집사님이 천사나 마귀를 자주 눈으로 보고 천사와 대화를 한다는 사람에게 대해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A)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성령)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6-17)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 3:16)라고 성령의 거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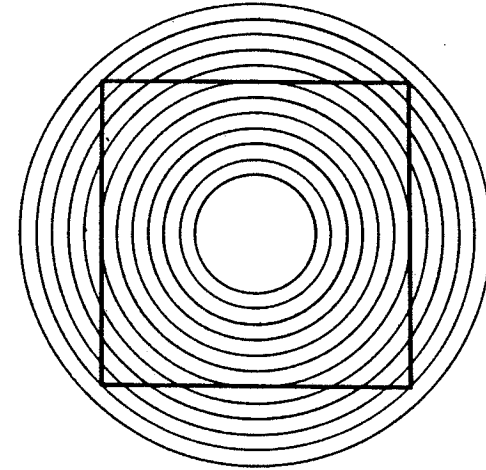
성령께서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심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압니다.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덤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건강할 때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에도 생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압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는 다 합하면 약 3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천사와 마귀를 자주 눈으로 보고 천사와 대화하는 것이 은사라고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은사는 그저 참고로 들어 두는 정도로 너무 크게 관심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말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삼충천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도(고후 12:2) 그 동안 한번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엉뚱한 기로 빠지기 쉽고 위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 주는 확실한 것을 제외하고 대개의 경우는 조심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속 시원한 상담”中에서 (김 상 복 목사)

교회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99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City 한인교회 City Korean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1권 7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1999년 8월29일
☎(64-9)262-3717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림에 보이는 사각형의 각 변은 오목하게 줄어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비스듬히 세워 보면 실제로는 정사각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것이 더 작다고 불평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
(디모데전서 6:8)

주 일 예 배

- *묵도 Silence
-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 *찬송 Hymn 40 장
-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7 (시 16편)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 찬송 Hymn 429 장
- 기도 Prayer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 4:1-4
- 복음송가 Praising “금과은 나 없어도”
- 주일학교 Sunday School
- 설교 Sermon -요단에서 광야로-
- 설교후 기도 Prayer
- 찬송 Hymn 455 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 *헌금 기도 Offertory Prayer
- *응답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 *위탁의 말씀
- *축도 Benediction

- 오후 1:30
- 다 같이
- 인도자
- 다 같이
- 다 같이
- 다 같이
- 아동부
- 김성국 목사
- 다 같이
- 인도자
- 다 같이
- 인도자
- 김성국 목사

(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계속 됩니다)

일자	기도	헌금봉헌	예배안내	Tea time
1		김정훈	한 건	안은주/김성국
8	김성국	지윤수	지윤수	김효/지윤수
15	지윤수	한 건	한 건	안은주/한 건
22	*	지연희	지윤수	김효/지윤수
29	*	김효	한 건	안은주/김성국

'99년도 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실천사항> *신 양: 기초성경공부이수 *주일예배: 정장으로 예배참석 *생활: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하지도 맙시다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

교회소식

1. 금주 금요구역예배(7:30 PM)
*지윤수 집사, 김 효 성도 가정
78 Sheriff Pl. Alfriston. ☎268-9300
2. 복사기 기증
주님의 교회에서 본 교회를 위해 복사기를 기증하였습니다.
3. 연말 Tax Refund를 위해 헌금은 헌금봉투에 넣어서 이름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4.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우리 교회 전용 예배실과 사무실을 갖도록(1층 Hall)
-주일아침 성경공부와 예배
2) 토요일 저녁 family service(토요일에 드리는 온가족 예배)의 시작과 찬양팀 구성을 위해
3) 예배 반주자 위해(울건, 피아노)
5. 목회비전과 교회내규에 대한 설명모임을 다음 주일에 갖습니다.
6. 9월 방학기간에 가질 신앙캠프를 위해 좋은 장소(캠프장)를 알고 계신 성도의 정보를 기다립니다.(1-2시간 거리이내)
7. 비어있습니다. <9월 예배기도담당>

주일	예배기도	안 내	헌금위원	tea time
5		지윤수	김 효	안은주, 김성국
12		한 건	지윤수	김 효, 이해경
19		김 효	김정훈	안은주, 한 건
26		한 건	한 건	김 효, 지윤수

아버지께 아들에게 <h3 style="text-align: center;">신 발</h3> 신발 뒤축을 꺾어신지 마라. 너는 자유분방하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나 남들에게 작은 것 하나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믿지 못할 자로 보여진다.	어머니께 딸에게 <h3 style="text-align: center;">성형수술</h3> 성형수술을 꿈꾸지 말아라. 좀 덜 예뻐도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법이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삼투작용이 있어서 바깥으로 스며나오기 마련이다.
--	--